10.15686/fkl.2025..64.309 OPEN ACCESS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속 한일 여성의 대화와 상상력의 가능성

-박민정 소설에 나타난 '여자력'에 주목하여

미즈구치 나츠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페미니즘 리부트와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일본 여성'
2 단순화되(지 못하)는 '여자력'을 다시 생각한다
3 두 여성의 '대화'가 계속될 때—「세실, 주희」
4 상상력의 실패와 시도의 반복 속에서—「리사」 연작
5 나가며—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속 한일 여성이 가진 희미한 가능성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886).

본고는 박민정 소설에 나타난 한일 여성에 대한 서사를 검토하여 그 속에 나타나는 이해와 연대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박민정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은 '여자력'을 가진 캐릭터들이다. 일본의 여자력 담론은 수동적인 여성성과 관련시켜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기존 페미니즘을 이미 만료된 개념으로 보면서 무한경쟁과 자기계발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와 결합된 여성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포스트페미니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본 여성의 여자력을 바라보는 박민정 소설 속 한국 여성들은 페미니즘 리부트를 경험한 이들인데, 페미니즘 리부트 또한 포스트페미니즘의 자장 안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설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일 여성은 포스트페미니즘적 지평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민정 소설 속 한일 여성들은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 현위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연대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포스트페미니즘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하게 타자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실, 주희」의 세실이나 「리사」 연작의 지연이 보여주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대화와 상상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읽을 수 있다. 박민정 소설을 포스트페미니즘과 직면한 한일 여성의 분투의 서사로 읽었을 때, 소설은 그들의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국문핵심어: 포스트페미니즘, 페미니즘 리부트, 여자력, 신자유주의, 한일 여성, 박민정

1 들어가며 — 페미니즘 리부트와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일본 여성'

2015년 메갈리아 현상, 2016년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2017년 미투운동, 2018년 혜화역 시위, 2016~2019년 낙태죄 폐지운동 등을 경유해 현재까지 페미니즘 담론의 역동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페미니즘

재활성화 및 대중화에 관한 일련의 흐름은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면서 한국문학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왔다.[1] 손희정은 페미니즘 리부트를 기존의 페미니즘 문화운동과 단절을 보이는 소비사회의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를 지반으로 하는 '포스트페미니즘' 자장 안에서 등장한 것으로 설명한다.[2] 포스트페미니즘은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페미니즘의 시효만료성이 주목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나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서 기존의 페미니즘을 "선별적 포섭(selective incorporation)"[3]하고 무한경쟁과 자기계발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와 결합된 주체성을 내세우는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4] 여기서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이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명백한 주장과 정치성을 지닌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백래시'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이미 성공하고 만료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주장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연하게 공유되는 '감각(sensibility)'으로서 보급된다.[5]

이처럼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에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붙이면서 기존 페미니즘에 대한 인정과 그것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위의 손희정의 지적처럼 이러한 포스트페미니즘의 자장 속에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성운동에 대항 인정과 단절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측면을 지닌다. 손희정은 페미니즘 리부트가 두 가지 실용적인 이유에서 고안된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기존의 페미니즘 문화운

1 오혜진,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한국 여성문학·퀴어문학 연구—2010년대 이후 시민권 담론과 소수자정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3쪽.

2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한국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나무연필, 2017, 48쪽.

3 Shelly Budgeon, "The Contradiction of Successful Femininity", eds., Rosalind Gill and Christina Sharff, *New Femininities—Postfeminism, Neoliberalism and Subjectiv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p.281.

4 *ibid.*, pp.279-281.

5 Rosalind Gill, "Postfeminist media culture": Elements of a sensibility, *European Journal of Cultual Studies, Vol.10, No.2*, 2007.

동과 2015년에 일어난 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과 접속의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한다.[6] 그는 이어서 "'리부트'는 명백히 문화상품과 소비주체라는 자본주의적 수사에 기대고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포스트페미니즘의 자장 안에서 등장한 이러한 현상들의 문화적 성격과 그것이 대중문화와 맺고 있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라고 역설한다.[7]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한국문학 또한 이러한 포스트페미니즘 담론에 다분히 영향을 받으면서, 페미니즘, 혹은 포스트페미니즘적 사고를 반영한 작품이 많이 등장했다. 본고가 주목하는 박민정 역시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 속에서 "영페미니스트 소설가"[8]로 소개된 바 있다.

한편,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발표된 한국 소설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이라는 소재, 특히 '일본 여성'을 소환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에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황호덕의 지적대로 더는 "결정적인 주제"[9]가 아니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 이미지만에 지배되는 대타자로서의 일본은 사라지고, 현재의 한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연관되는 일본의 이미지가 한국문학 속에서 묘사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일 여성 교류 양상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주목받으면서 일본의 페미니즘 연구자 우에노 치즈코의 저서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가 재조명되었다. 2018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여 양국 미투(#MeToo)의 선구자가 된 서지현과 이토 시오리가 한국에서 대면하기도 했다. 또한 이 해는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며 '한국 페미니즘'이 소위 'K-Culture'에 대한 관심과 결합되면서 일본에 급속도로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일본과 젠더를 둘러싼

6 손희정, 앞의 책, 48쪽.

7 위의 책, 48쪽.

8 2020년에 출간된 단행본 『바비의 분위기』(박민정, 『바비의 분위기』, 문학과지성사, 2020.)의 띠지에는 "영페미니스트 소설가 박민정 신작 소설집"이라는 문구가 있다.

9 황호덕, 「큰 일본, 그런 일본, 어떤 일본—'일본'이라는 일상 개념, 한국 소설과 일본(인), 대타자에서 교차성까지—」, 『개념과 소통』 제30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2, 97쪽.

시선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일 사이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중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는 한편, 1970년대 제2물결 페미니즘부터 시작되는 일본 페미니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백래시, 그리고 일본 여성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이제 젠더라는 관점을 제외하고 보는 것이 더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적 관심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대 한국문학장에서 '일본 여성'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COVID-19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규제 조치가 풀린 2023년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 수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약 232만 명, 방일 한국인 관광객 약 696만 명으로 양국에서 상호 1위를 차지했다.[10] 그중에서도 같은 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 수는 남성의 1.9배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30대의 젊은 여성이 일본인 관광객 전체의 27.6%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11] 즉, '일본 여성'이라는 존재는 한국문학의 주된 독자층이 된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여성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조우하게 되는 타자가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본고가 다루는 박민정 소설에는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의 복잡한 관계가 나타난다. 박민정 소설에서 묘사되는 한일 여성 서사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설 속에서 주로 서술자로 등장하는 한국 여성이 일본 여성과 조우하게 되는 계기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시간성 속에서 일상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점이다. 「세실, 주희」에서 주희는 명동 화장품 매장이라는 직장 환경에서 일본 여성인 세실과 만나게 된다. 「나의 사촌 리사」에서 일본 여성 리사는 서술자 지연의 사촌으로 두 여성의 만남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지만, 지연이 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점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현재'이다. 페미니즘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여성의 성적 착취에 민감한 한국 여성 서술자들이 일상 속에서 일본 여성을 만나며, 그

10 「작년 한일 관광객 상호 1위…일본 방문 한국인이 세 배」, 『연합뉴스』, 2024.1.31.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154200030 (최종 접속일 2025.3.15.)

11 「1~5월 日관광객 66만명 한국 찾아…외국인 관광객중 '최다'」, 『매일경제』, 2024.7.9. https://stock.mk.co.kr/news/view/169956 (최종 접속일 2025.3.15.)

들과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둘째로, 박민정 소설 속 한국인 여성 서술자들은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의 심리나 상황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민정 소설에서 그려지는 일본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길들여진 인물들이며, 한국 여성 서술자들은 그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일본 여성을 어떤 '틀'에 맞춰 인식하고자 할 때, 항상 소설 속의 일본 여성들은 그 틀에 조금씩 들어맞지 않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

셋째로, 박민정 소설 속 한국 여성들의 눈에 비추는 일본 여성의 모습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본 여성은 대체로 한국 여성 인물의 시점에서 그려지는데, 이들의 시선을 통해 묘사되는 일본 여성의 상(像)은 그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며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는 일본 여성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일본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여성 인물의 시선과 심경이 변화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다. 박민정의 소설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이처럼 박민정 작품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의 서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는 박민정 소설에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를 사는 한일 여성의 모습, 특히 일본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여성의 시선이 담겨있다. 본고는 한국과 일본 여성 사이에 놓이는 포스트페미니즘적 기표들이 박민정 소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는 한일 여성의 사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한 요인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민정의 작품 중에는 일본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많으나 본고는 그 중에서도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이 교류하게 되는 「세실, 주희」와 「나의 사촌 리사」,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 「하루미, 봄」 연작(이하, 「리사」 연작)을 중심적인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12] 우선 본고는 2장에서 박민정

12 박민정 소설 중에 「행복의 과학」(『문예중앙』 통권 제147호, 2016년 가을. 소설집 『아내들의 학교』(박민정, 『아내들의 학교』, 문학동네, 2017.)에 수록)과 「A코에게 보낸 유서」(『문학3 문학웹』, 2017년 1월~3월, 소설집 『아내들의 학교』(앞의 책)에 수록) 연작에서도 일본을 바라보는 여성 서술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연작에서는 일본인 여성 인물이 등장

소설 속 한국 여성이 일본 여성을 대상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실, 주희」의 서술 방식을 참조한다. 이러한 대상화의 이면에는 일본 여성들의 '여자력'을 수동적인 여성성으로서 보는 한국 여성의 시선이 있지만, 일본의 '여자력' 담론이 포스트페미니즘의 자장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지점에서 사실 이는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공명하는 측면이 있다. 3장에서는 「세실, 주희」를 재방문하여 한일 여성의 포스트페미니즘적 태도와 그 속에서 제시되는 이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리사」 연작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는 한일 여성의 관계 속 그들이 서로를 상상하기 위한 시도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지평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모습이 다른 한일 여성의 양상과 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희미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순화되(지 못하)는 '여자력'을 다시 생각한다

2017년 문학동네 가을호에서 발표되어 2018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박민정의 단편 소설 「세실, 주희」[13]는 한국문화를 동경하는 일본 여성 '세실'을 만난 한국 여성 주희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소설이다. 작중에서는 여성 억압과 식민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본 여성 세실에 대해 주희가 느낀 의문과 불편함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세실이 위안부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고', 더 근본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자신의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일본이 전쟁에서 저지른 잔혹한 폭력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대는 실패하고 결국 "세실과 [주희가 미국에서 만난 친구] J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14]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점화자 주희는 미국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그 사건 이후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 인물이

하지 않고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13 박민정, 「세실, 주희」, 『바비의 분위기』, 앞의 책. 이하 인용문은 쪽수만 밝힌다.

14 인아영, 「유토피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박민정론)」, 『경향신문』, 2018.1.1.

다. 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일본 여성 세실은 한국의 아이돌에 열광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편, 제국주의 역사나 여성 차별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부족한 캐릭터다. 소설에서 두 여성 사이에는 "계급적 • 언어적 우월자"[15]인 주희가 "지적 우위를 선점하는"[16] 위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도 역시 초점화자 주희의 시선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설은 철저하게 주희만의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주희가 의식하고 사고하는 대목은 집중적으로 묘사되는 한편, 주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설 텍스트 속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여성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주희의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소설 속에서 의도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세실의 대사를 통해 주희의 외모에 대한 정보는 간접적으로 언급되지만 세실이나 J와 같은 다른 여성 인물의 외모는 묘사되는 장면이 없다. 이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문제시하는 초점화자 주희의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오히려 남성 등장인물의 외모는 소설 속에서 상세하게 묘사된다. 환전소에서 일하는 일본인 남성 다카키 마모루는 "긴 머리를 묶은 뚱뚱한 남자"(52)로 묘사되며, 주희는 그의 "행색이 꼴사납다"(52)고 느낀다. 주희는 세실이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남성들을 "하나같이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남자들"(52)로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자신을 더욱 초라한 사람으로 만든다"(52)며 남성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설은 주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불안정한 시선을 통해 전개된다.

이렇듯, 주희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서술을 일종의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이야기로 본다면, 소설에서 재현되는 주희와 세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주희는 정말로 세실보다 지적으로 우월한가? '무지함'은 과연 세실만의 것인가?

이미 이채원의 선행연구[17]가 밝힌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서 유

15 황호덕, 앞의 글, 121쪽.

16 오혜진, 「허윤, 오혜진의 백일몽 4. '멍청한 여자'」, 『핀치』, 2019. https://thepin.ch/think/p9oGw/daydream-4 (최종 접속일: 2025. 3. 15.)

17 이채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역학관계—트랜스내셔널 페미

일한 지상전의 무대가 된 오키나와에서 동원된 '히메유리 학도대' 여성들의 위치는 소설 속에서 주희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류큐왕국은 1879년에 오키나와 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본 국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며 마지막에는 집단 자살까지 실행하게 된 까닭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 단순한 애국심이나 천황에 대한 신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일본인'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투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이후 히메유리 학도대를 포함한 오키나와 전사자들을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신사에 '영령(英霊)'으로 모셨고, 이에 일부 유가족들이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고소한 경위가 있다.[18] 이렇듯, '오키나와'와 '히메유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여성 억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코드이기도 하다. 또한 태평양전쟁 이후 약 30년 동안 일본의 '버린 돌(捨て石)'로서 미국에 의해 통치되어 그 이후 현재까지도 수많은 미군 기지가 남아 있는 오키나와라는 공간에서 태어난 일본인 여성이 '세실(セシル, Cecil)'이라는 서양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는 설정 또한, 세실 역시 제국주의 영향 아래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세실이라는 인물 설정에는 소설 텍스트에서 직접 밝혀지지 않는 복잡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주희의 시선에 의존하는 소설 텍스트는 이러한 세실의 복잡한 정체성을 은폐하면서 서술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나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기지 않"(65)는 주희는 세실의 증조모를 히메유리 학도대의 집단 자결을 이끈 장본인이리라고 상상하며 세실을 "전쟁 영웅의 후손"(68)으로 위치시키고 단순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세실의 '무지함'은 강조되며, 소설은 마치 "각종 자료를 섭렵해 세실의 말을 검증하고 반박"[19]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실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이 한국 여성인 주희의 관심의 바깥에 있는 역사적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주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세실뿐만 아니라 주희 또한 자신이나 상대방이 놓여 있는 폭력의

니즘의 구축과 한일 여성연대 가능성」, 『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1호,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18 髙良沙哉, 「沖縄靖国神社合祀取消訴訟」, 『沖縄大学人文学部紀要』, 沖縄大学, 2012.

19 오혜진, 「허윤, 오혜진의 백일몽 4. '멍청한 여자'」, 앞의 글.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주희가 세실의 언행을 검증하고 반박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 검증과 반박은 미묘하게 세실이 갖고 있는 '오키나와', '여성'이라는 복잡성을 무시하고 주희가 이해하기 쉬운 식민 가해자로서의 '일본' 국민이라는 틀에만 세실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희 역시 세실을 오해하는 '무지'한 측면이 있으며, 세실과 주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무지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불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주희가 세실의 복잡성에는 눈을 돌리고 자꾸 단순한 방식으로만 세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하나의 가설로서 그 이유를 박민정 본인이 주목하는 일본 여성의 '여자력'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박민정은 배삼식과 허윤과 함께 진행한 대담에서 그가 생각하는 일본 여성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박민정 일본 여성에게는 조신하고 현모양처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부여된 것 같아요. 세실도 주희에게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엽다고 하잖아요. 귀엽게 생겨서 예쁘다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여성상이 일본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있고요. (…) 일본 미디어에서 추앙받는 여성상이라든지 예쁘다고 칭찬하는 건데 왜 그러냐는 식의 일상적인 반응이라는 게 모던 걸 시절부터 얼마나 공고하게 자리잡혔던 것인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한국 여성들을 대상화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자력'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배삼식 여자력이요?

박민정 네, 여자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경쟁력처럼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냐, 요리를 얼마나 잘하냐 하는 식으로 여성스러움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이 2019년인데도.

허윤 한국과 일본이 OECD 국가 중 성평등 하위권에서 경쟁하는데요. 이슬람 국가보다 낮은 걸로 나와요. (웃음) 일본은 이게 모두 시장질서라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력이 높은 어리고 예쁜 여자가 경제력이 있는 사오십대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박민정 그걸 약간 한국이 따라 하려는 게 있잖아요. 일본은 버블의 문턱에 있었던 아저씨들이랑 젊은 여자들을 미디어에서 커플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젊은 여자들을 '헤이세이(平成, 1989년) 이후에 태어난 여자애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들은 어리긴 한데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버블 아저씨들을 크리스마스의 찬란함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동경하는 식의 구도를 만드는 거죠.[20]

박민정은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여자력'이라는 단어를 여성스러움의 정도를 따지는 경쟁력으로 본다. 이에 대담자인 허윤도 동의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자본을 등가로 교환할 수 있다고 믿는 일본 사회에서 '여자력'을 가진 어리고 예쁜 여성들이 사오십대 기득권 남성과 결혼한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들이 일본 여성에는 모던 걸 시절부터 계속되는 특유의 '수동성'이나 '순응성'이 있다고 보고 그 특성을 '여자력'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일본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박민정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과도 부합한다. 박민정 소설 속의 일본 여성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된 여성성에 맞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작중 한국 여성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자력'을 수동적인 여성성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박민정의 이러한 견해는 일본에서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던 배경에 놓인 복잡한 맥락을 놓치고 있다. 일본에서 '여자력'에 대해 연구한 기쿠치 나쓰노에 따르면 '여자력'이란 "규율 훈련적 측면"이 있는 능력이며, 오히려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강조된 용어로 설명된다.[21] 또한 지은숙은 "여자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우선 한국어의 여자력과 일본어의 죠시료쿠

20 배삼식·박민정·허윤, 「두 여자의 이야기—역사와 민족의 경계를 질문한다」, 『문학동네』 통권 제101호, 2019년 겨울, 79-80쪽.

21 菊地夏野, 『日本のポストフェミニズム—「女子力」とネオリベラリズム』, 大月書店, 2019, 87쪽.

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2]고 주장하며, '여자력'이라는 단어의 일본어적인 맥락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조시(女子)는 주로 고교생 이하의 여학생을 지칭하는 공적 용어로 [여성을 지칭하는 다른 일본어 단어인] 온나, 조세에 비해 중립적인 울림이 강한 단어"이며, "여학생들이 "조시(女子)끼리의 대화니까 단시(男子)는 저리 가 있어"할 때처럼 정체성을 담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23] 더불어 특정 명사 뒤에 '력(力)'을 붙인 단어들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에서 부쩍 사랑받고 있는 단어"라며, "일본의 '○○力' 붐의 배경에는 노동세계의 불안정화와 후기 근대사회의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의지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현실"이 있으며, "생애를 기댈 기업이나, 자신을 이끌어줄 가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달성이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처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24]고 설명한다.

이렇듯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일본 논자들이 '여자력'의 유행을 "남성에게 향한 것이 아닌", "오히려 '여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장식의 힘"[25]으로 이해하면서 여성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2014년에 일본에서 15-55세의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비자조사 결과를 보면, '여자력'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내용으로서 '배려할 줄 안다', '요리를 잘한다', '멋쟁이다', '미용에 관한 의식이 높다', '향상심(向上心)이 있다' 등의 항목이 상위권에 보이는 한편, '남자에게 잘해준다', '남자에게 아양을 떤다', '젊다', '얌전하다' 등의 단어를 연상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대 이하로 전체적으로 적었다.[26] 기쿠치 역시 자신이 대학교 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본에서 '여자력'이라는 말은 '태생의 미인, 미모'를 가리키

22 지은숙, 「능력주의는 여성을 임파워링하는가—일본의 여자력(女子力) 담론을 통해 본 능력주의와 페미니즘의 역동」, 『페미니즘연구』 제22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22, 43쪽.

23 위의 글, 43-44쪽.

24 위의 글, 44쪽.

25 米澤泉, 『「女子」の誕生』, 勁草書房, 2014, 191쪽.

26 「消費者標本調査結果 2014年度」, 吉田秀雄記念事業財団, 2014. https://www.yhmf.jp/aid/data/omnibus_2014.html (최종 접속일 2025.3.15.)

는 말이 아닌,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사 능력이나 외모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뜻하는 용어로써 사용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27] 이에 대해 기쿠치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페미니즘이 유행한 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에 사회적 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가 보수화되며 성 역할 분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진 사실에 주목하면서, '여자력'을 신자유주의 사상을 체현한 "포스트 근대 형 능력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포스트페미니즘이 "일본에 존재함을 드러내는" 단어로 자리매김한다.[28]

이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자력'에 관한 담론을 여성에게 수동성을 요구하는 전근대적 가치관에만 기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화하기 어렵게 된다.[29] 여기서 본고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여자력'이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졌다는 식으로 단순화된 구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한 2000~2010년대 일본에서 '여자력' 담론이 형성되어 수용되는 과정에서 프스트페미니즘적 논리가 다분히 작동되었다는 지점이다. 즉, '여자력'이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을 실시간적으로 받은 후 강력한 백래시와 경제적 몰락을 맞이한 일본에서 등장한 포스트페미니즘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포스트페미니즘적 의식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여성 또한 '여자력'을 획득하고자 애쓰는 일본 여성들을 마냥 타자화

27 菊地夏野, 앞의 책, 123쪽.

28 위의 책, 99쪽;124쪽.
한편, 최근 일본에서 '여자력'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화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의 '여자력' 담론의 구체적인 변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지은숙의 논문을 참조.

29 오은교는 박민정의 '여자력'에 대한 해석에 대해 1990년대 이후 백래시가 일어난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의 미덕으로 '여자력'이 내세워졌다고 보는 조경희의 논문을 참조하면서, "꾸밈이나 가사 노동 등 '여자력'을 강조하는 동년배 일본 여성을 보며 당혹감을 느끼는 한국 여성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서사화해 온 박민정의 소설이 멈춰서는 지점 또한 한일 여성들 간에 페미니즘 의식화 수준이나 위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정하려는 순간, 이 문제는 다시 민족주의나 식민주의 논법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은교, 「'혐한'과 '노재팬' 운동 속 일본 여성을 읽는 일」, 『크릿터』 통권 제2호, 민음사, 2020, 17쪽.)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흥미로운 것은 박민정이 일본의 '여자력'에 대해 "한국이 따라하려는 게 있"다고 본다는 지점이다. 물론, 한국의 상황을 단순히 직선적으로 일본을 따라한 결과로 보는 것은 어려우며, 한일 양국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코 일본의 정황을 남의 일로 보지 않는 박민정의 시선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한국과 일본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포스트페미니즘적 지평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박민정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 여성들 역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내포한 '여자력'을 갖추면서 한국 여성 앞에 출현한다. 이때 그들을 보는 한국 여성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그 '여자력'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곳에는 완벽히 단순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여자력'의 포스트페미니즘적 지평이며, 그렇기에 소설 속 한국 여성들은 결국 그 양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소비사회에서 비록 형태는 다를지언정 한일 양국의 여성들에게 소비력이나 경쟁력이 요구되고 그것이 미묘하게 여성성과 결합되는 현실을 소설 속 인물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의 사이에서 박민정 소설 속 한일 여성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3 두 여성의 '대화'가 계속될 때 —「세실, 주희」

박민정 소설에 나타난 '여자력'의 포스트페미니즘적 지평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세실, 주희」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의 인용은 해당 작품에서 유일하게 한국 여성 주희와 일본 여성 세실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명동에 위치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세실과 함께 일하게 된 주희는 세실의 부탁으로 그와 한국어 과외를 시작한다. 과외 첫날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다툼은 여성을 쉽게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의 시선을 불편하게 여기는 주희와 그러한 시선에 순응하는 세실의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첫날 주희와 세실은 다퉜다. 그날 바로 화해하지 않았다면 일요일 오후

의 한국어 과외는 없던 일이 되었을 것이었다. 세실은 그날, 환전소 직원부터 신당동 떡볶이집의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시원으로 오는 길에 만난 일본 남자들 대부분이 주희의 외모를 칭찬했다고 말했다. 주희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본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세실은 그런 말을 칭찬이라고 여기는 모양인지 계속 떠들어댔다. 마모루 상 역시 예쁘다고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놀라버렸어요. 하지만 주희씨는 특히 일본 남자들이 좋아할 얼굴이니까. 귀여운 느낌이니까. 다음 말을 들으며 주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주희씨도 성형을 좀 했겠죠? 한국 여자분들은 성형을 많이 하니까요. 보편적으로."

주희는 그녀가 '보편적으로'라는 단어를 안다는 사실과, 그렇게 무례한 말을 웃는 얼굴로 한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주희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세실 상,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요?"

"왜요? 미인이라서 그런 건데요. 또 한국 여자는 성형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한국 여자가 성형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일본 여자 대부분은 AV를 찍나요?"

세실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희는 자기 말에 놀랐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세실이 울기 시작했다.(53-55)

세실은 주희의 얼굴을 본 일본 남성들이 대부분 그의 의모를 칭찬한다고 하면서, "주희 씨도 성형을 좀 했겠죠? 한국 여자분들은 성형을 많이 하니까요. 보편적으로"라는 말을 던진다. 이때 세실의 말은 일본 남성의 시각을 무의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주희에게 "한국 여성에겐 '보편적' 관습 혹은 약점이 있다(국민성 담론의 수행), 한국 여성은 성형한다(여성 혐오의 인종주의적 수행), 성형해서 예쁜 것이

니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욕망할 가치가 없다는 부인의 수행)"[30]이라는 세 가지의 폭력을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세실이 주희에게 악의적으로 행했다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세실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주희를 바라보는 세실의 시선에는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바라볼 때와 같은 악의적인 혐오보다 주희에 대한 동경 내지 친근감이 더 담겨져 있다. 세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코리안 뷰티의 상징 중에서도 상징인 명동 쥬쥬하우스의 매니저"(47)인 주희의 모습이며, 두 사람의 직장이 있는 '명동 화장품 거리'는 소설에서 묘사되듯이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신사동과 함께 코리안 뷰티의 상징"(47)인 공간이다. 미용에 대한 의식이 높고 미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능력으로 간주하는 '여자력' 담론에 익숙한 세실에게는 이러한 발언 역시 자신과 같이 '코리안 뷰티'의 자장 속에 있는 주희에게 건네는 악의 없는 잡담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주희의 "세실 상,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반박에도 세실은 "왜요? 미인이라서 그런 건데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결국 그의 의도가 어떠했건, 한국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찬 세실의 발언은 주희에게 폭력으로서 다가온다. 화가 난 주희의 입에서 나온 "그러면 일본 여자 대부분은 AV를 찍나요?"라는 강력한 언어적 폭력의 반박은 두 여성에게 인종주의적 여성 혐오의 시선이 얼마나 상처로 남는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모습이 미국 포르노 사이트에서 'Asian slut'로 소비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주희는 세실에게 상처를 주고자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란다. 한편 세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고 한 시간 내내 울게 된다. 일본 여

30 황호덕, 앞의 글, 122-123쪽. 황호덕은 이후 "박민정이 그린 전형적 '한남'의 발화와 겹쳐 보면 세실이라는 일본 여성의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더욱 선명해진다"(위의 글, 122쪽.)라며, 성형 수술과 관련해서 한국 여성에게 가해진 혐오적 시선을 「바비의 분위기」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분석한다.
"그녀도 결국 성형한 얼굴이었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잊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닮은 로봇을 만들었단다. 우리 연구실 조교 기영의 이름을 따서 K-Bot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나는 그녀를 바비라고 부르지. 이미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도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온전히 인정하지."(박민정, 「바비의 분위기」, 『바비의 분위기』, 앞의 책, 113쪽.)

성에 대해 가해지곤 했던 혐오적인 시선에 대한 상처는 어쩌면 세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 있었으며, 주희의 말이 그 상처에 닿은 순간 눈물로서 표출된 것인지도 모른다.

> "내가 바라는 게 그냥 이런 거예요. 대단한 공부 이런 게 아니고, 나와 대화해주는 거요. 아무튼 다시는 주희 씨를 화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
> 다음날 쥬쥬하우스에서 마주친 세실은 주희의 앞치마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더니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 가네보사의 폼 클렌저였다. 장미꽃 모양으로 거품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폼 클렌저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주희 씨, 미안해요. 실수 하지 않을 거예요. Cecil. 주희는 퇴근하기 직전 답례로 파우치에 있던 새 립스틱을 부랴부랴 세실에게 건넸다.
>
> 그런 세실에게 포르노 비슷한 어떤 단어도 운운할 수 없었다.(55)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혐오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강렬한 미러링의 장면은 역설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울음이 잦아들자 세실은 주희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그 방법이 주희에게 억지로 과외비를 건네주거나 화장품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점은 세실의 무의식적인 자본주의적 경향이 드러나는 한계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세실이 자신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주희 또한 느낀다는 사실을 통감한 것은 확실하다. 그날 헤어지면서 세실이 주희에게 건넨 말은 그들의 희미한 연대의 가능성을 증명해준다. "내가 바라는 게 그냥 이런 거예요. 대단한 공부 이런 게 아니고, 나와 대화해주는 거요." 이 구절은 박민정의 다른 소설 「A코에게 보낸 유서」에서 '하나'가 '수연'에게 끝내 건네지 못했던 "서로 상처 주는 순간이 있어도 친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을 나는 이제 알 것 같아요."[31]라는 속마음을 상기시킨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어려운 이해의 가능성은 오직 서로가 서로

31 박민정, 「A코에게 보낸 유서」, 『아내들의 학교』, 앞의 책, 107쪽.

에게 상처주면서도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만 열리게 된다. 오해와 무지를 넘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서로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고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소설에서 세실과 주희의 소통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까닭은 앞에서 인용한 사건을 경험한 주희가 "그런 세실에게 포르노 비슷한 어떤 단어도 운운할 수 없"다고 느끼며 서로 상처 주게 되는 대화를 피하기 때문이다. 대신 세실을 보면서 주희는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화장품을 수집하는 것을 즐기는 '코덕'으로서 과거에는 대규모 화장품 커뮤니티의 관리자를 맡았고 이제는 "코리안 뷰티의 상징 중에서도 상징인 명동 쥬쥬하우스의 매니저라는 자부심"(47)을 갖고 일하는 주희는, 세실에게 일본 전범 기업 화장품을 선물로 받은 일을 계기로 화장품을 소비하면서 윤리적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희의 자기 성찰은 독자에게 주희 또한 포스트페미니즘적 '여자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희에게 화장품이나 미용용품의 소비는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한 단순한 취미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협찬 광고나 화장품 기업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자본주의적 성취를 얻어낸 경쟁력으로도 기능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희는 상품의 생산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하지 않고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소비해 왔으며,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소위 '외모지상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코리안 뷰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신을 발견함에 따라 주희는 '여자력'이 높은 세실을 쉽사리 대상화하고 타자화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세실과 주희의 '여자력'적 측면은 그들 사이에 불화를 가져다주는 한편으로,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야기하기도 한다.

> 그때 세실이 주희의 팔짱을 조금 더 힘주어 꼈다. 지금 무슨 시위중인가요? 나는 시위대의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은 좀 민감해서요..... 세실은 주희의 어깨에 얼굴을 갖다 댔다. 주희는 세실을 토닥이며 말했다.
>
> "괜찮아요, 세실 상. 이건 평화로운 집회예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집회예요." 세실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아, 그래요? 나도 중학교 때

부터 반전 집회에 참여했어요, 일본에서. 우리 할머니도 전화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주희는 기분이 이상해져 세실을 돌아봤다. 세실은 멀리 있는 것을 보려는 듯 발돋움을 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주희는 세실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실, 당 신의 할머니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조금 달라요..... 세실의 할머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면서요.....

그런 말을 세실에게는 결코 할 수 없었고 주희는 조금 참담해졌다. 세실 상, 다른 길로 갈까요? 주희는 세실에게 진지하게 물었고, 세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가요.(73)

소설 마지막에서는 세실과 주희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예고되는 장면이 잠깐 삽입된다. 두 사람은 위안부 보상 시위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된다. 위안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세실은 시위대를 경계하고 주희 뒤에 숨고자 한다. 그런 세실에게 주희가 "이건 평화로운 집회예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집회예요."라고 설명하자 세실은 시위 참가자에 연대감을 느끼듯 "눈을 빛내며"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반전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시위대 쪽으로 발돋움을 한다.

이와 같은 세실을 바라보는 주희의 심경은 내심 복잡해진다. 물론 주희의 속마음이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의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에 '영령'으로서 이름이 새겨진 세실의 할머니를 같은 층위에서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실과 그의 할머니가 살았던 오키나와 역시 또 다른 일제 식민의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는 주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복잡성이 존재한다.[32]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법

32 오키나와 여성 내지 '할머니'라는 존재는 반전 집회 같은 공간에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박민정도 대담「두 여자 이야기」로 언급한 손희정의「할머니들」이라는 글에서도 설명되듯 오키나외의 미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는 항상 '할매(おばぁ)'라고 불리는 고령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 손희정은 이러한 오키나와 여성의 모습으로부터 밀양의 '할매'를 연상하면서 이와 같이 기술한다.
"마음이 오직 '힐링'과 같은 산업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시대에, 그 마음을 살려 내어 나와 남을 조직하는 운동이야말로 약한 운동이 아니라 강한 운동일 터이다. 그런 강한 운동들

의 ‘대화’를 제안한다.

우선 주희가 제시한 방법은 시위 현장을 피해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용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실을 함부로 타자화할 수 없게 된 주희는 복잡한 화제를 피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는 길을 “진지하게”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두 사람의 오해를 풀 수는 없지만 그만큼 충분히 온건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실은 주희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욱 많은 가능성을 지닌 방법을 제안한다. 그는 주희에게 “괜찮아요. 그냥 가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소녀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여기에서 세실의 선택은 독자에게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연대의 가능성”[33]을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희가 계속해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실의 ‘여자력’이 드러나는 행동들, 주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했던 포스트페미니즘적 시선, 그리고 위안부와 오키나와라는 두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두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서로 상처를 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의 메타포로서의 주희와 세실은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세실의 모습은 그에게 일말의 오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주희에게는 아직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현지 친구를 따라가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뿐이지만, 주희를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보는 독자에게는 이채원의 지적처럼 오히려 표면적인

안에는, 종종, 여성들이 있었다. 그것이 여성의 ‘본성’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의 주변적인 위치가 다른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런 가치야말로 ‘인간의 가치’로서 재발견되고 재의미화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손희정, 「할머니들」, 『페미니스트 모먼트』, 그린비출판사, 2017, 64-65쪽.)

33 이채원은 이 장면에 대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연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라며, “현실세계의 주희들이 현실세계의 세실들에게 소녀상의 의미를 말한다면, 히메유리 학도대의 진실에 대해 대화한다면, 자신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자신들을 포획하려하는 폭력의 그물과 입체적인 진실을 함께 논한다면 페미니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감하고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채원, 앞의 글, 152쪽.)

소설의 결말과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34]

4 상상력의 실패와 시도의 반복 속에서 —「리사」 연작

박민정 소설에 나타난 한일 여성의 모습은 「세실, 주희」 이후의 작품들을 통해 더욱 복잡하게 그려진다. 2018년에 발표된 「나의 사촌 리사」, 2019년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 2020년에 발표된 「하루미, 봄」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연작 소설(「리사」 연작)로 볼 수 있다. 해당 연작에서는 일본 여성 '리사'를 둘러싼 서사가 전개된다. 「나의 사촌 리사」의 직접적인 서술자로 등장하는 한국 여성 '지연'은 자신의 사촌 언니 '리사'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위해 일본에 가서 리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지연의 고모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리사는 한국어에 능통하지만 일본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살아왔다. 1991년, 일곱 살의 어린 나이로 일본 최대의 아역 배우 기획사 '토오꾜오 미키마우스 클럽'에 소속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트레이닝을 받아 아이돌 그룹 '메가미'의 보컬로서 일본에서 데뷔하고 학창시절을 연예활동에 바쳤지만, 이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오랜 숙제였던 리사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비로소 토오꾜오에 있는 그녀의 맨션까지 찾아가고 나서야, 나는 더없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
>
> 지금의 리사는 그때만큼 생기 넘치지 않았다. 애초에 나는 리사를 실패자로 보고 있었다. 내 머릿속의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십대까지의 리사,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였다. 리사가 '메가미(メガミ)'를 탈퇴한 후에도 가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던 것이다. 리사는 오직 메가미의 리드보컬이자 센터로서 팬들이 호명하는 불굴의 '여신'님이었다. 이십 대 중반쯤엔 아끼하바라의 전자상가 축제에서 관객

34 "주희가 끝내 세실에게 소녀상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은 채 끝난 소설의 결말이 오히려 표면적인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위의 글, 152쪽.)

> 다섯 명을 앞에 두고 “오따꾸들이여, 부활해!”를 외치던 리사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고는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리사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 이미지였으므로. 내게 리사는 이십대 초반에 화끈하게 실패해서 거품처럼 날아가버린 ‘왕년의 아이돌’일 뿐이었다.[35]

그러나 지연은 리사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것에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룹의 해체 후 20대 중반부터는 “소시민으로 겨우 살아가는”(128) 리사를 지연은 애초에 “실패자”로만 보고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고자 한다. 지연의 눈에 보이는 리사는 소녀들을 성적으로 대상화 하며 착취하거나 소비하는 ‘아저씨’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오고 스스로도 그런 시선을 내면화한 ‘여자력’이 높은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서술의 성격은 주희의 시선을 통해 일본 여성 세실을 바라보는 「세실, 주희」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지연이 주희와 다른 지점은 그가 상상한 일본 여성의 ‘틀’에 맞지 않는 리사의 모습을 지연 스스로가 발견함에 따라 리사를 고정적인 모습으로 상상하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지연은, 과거 “아끼하바라의 전자상가 축제에서 관객 다섯 명을 앞에 두고 “오따꾸들이여, 부활해!”를 외치”며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였던 리사의 모습을, 그것이 오타쿠들에게 소비되고 이용되는 아이돌이라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리사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애써 모른척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는 “리사를 남성적 재현 산업의 일방적 피해자로 그려내던 자신의 재현 언어를 붙들고 고민”[36]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리사를 “대상화”(133)하려는 자신의 시선과 그 실패에 대해 묘사하는 지연의 독백은 길게 이어진다.

지연이 이러한 스스로의 상상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이라는 공간에서 리사를 재현하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가

35 박민정, 「나의 사촌 리사」, 『창작과비평』 통권 제182호, 2018년 겨울, 120쪽, 이하 인용은 쪽수만 밝힌다.

36 김건형, 「소설의 젠더와 그 비평 도구들이 지금」, 『문학과사회(하이픈)』 통권 제127호, 2019년 가을, 45쪽.

인 지연은 자신이 그리는 인물들이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빈번히 받고 있으며, “리사의 출생의 비화에서 아이돌 시절의 에피소드까지 그녀를 적극적으로 베낀”(128)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에서는 “매서운 악평”(128)을 받게 된다. “내가 만든 인물에 대한 자괴심”(128)을 느낀 그는 더 이상 리사를 함부로 재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서사를 포기할 수도 없게 되어, 그의 글쓰기는 중지된다.

> 동노조와 리사의 관계를 생각하다보면, 실제로는 한 번도 목격하지 않은 장면이 추억처럼 떠오르곤 했다. 오래전 JR철도노조 전국투쟁을 스케치한 뉴스에서 본 철도노동자들의 현장. 그들과 함께한다고 수없이 외치며 무대를 누비는 세일러복의 리사. 자신들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무대 밑으로 내려가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리드보컬 리사. 아직도 인터넷에는 메가미에 관한 한글 정보가 두세 페이지쯤 남아 있었는데, ‘일본 최초의 개념 아이돌’이라는 한국어 사용자의 평가가 달려 있었다. 그런 코멘트를 보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전성기의 리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 내게도 대학 시절, 전국의 투쟁 현장을 누비던 친구들이 있었다. 춤과 노래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던 문선대 친구들은 그 특유의 재능으로 현장에 활기를 더하곤 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멀리 있는 사촌 리사를 떠올리며, 내게도 그런 재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던 순간이 제법 있었다. 리사가 문선대 친구들이 가졌던 진지함을 가지고 철도노동자들의 현장에 함께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이 내게는 있었다. 그럴 때도 문득 1991년의 리사가 떠오르긴 했지만.(124)

이러한 지연에게 리사라는 수수께끼를 풀게 하는 실마리로서 제시되는 것이 지연이 과거에 리사의 집에서 발견한 편지이다. 과거 리사의 집에서 발신자가 “일본 최대의 노조”(123)인 ‘JR동노조’로 되어 있는 편지를 발견한 사건을 계기로 지연은 리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아이돌 그룹 ‘메가미’가 활동 중에 가끔 노조 집회에서 공연을 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이후 지연에게 “동노조는 끈질기

게 내게 리사의 이야기를 쓰도록 종용하기도 한 단어였지만,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까닭”(123)이기도 했다. 지연은 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이돌 시절 리사가 동노조의 노조 운동과 연대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지연은 춤과 노래로 사회운동을 북돋았던 자신의 대학시절 문화선전대 친구들을 상기하면서 “리사가 문선대 친구들이 가졌던 진지함을 가지고 철도노동자들의 현장에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다. 리사를 순동적인 일본 여성이라는 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게 된 지연은 이번에는 운동 참여자라는 틀을 가져와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운동의 모습 또한 어디까지나 지연이 한국 대학생으로서 체험한 것에 불과하며, 일본에서 어린 시절부터 연예활동에 종사하며 대학에 다니지 않았던 리사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소설 후반부에서 리사는 동노조 집회 공연에 메가미가 출연한 이유를 “우리는 노조의 아이돌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원했으니까.”(133)라며, 운동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 참여했다고 회상한다. 또한, 그 공연 중에 어떤 남자가 메가미의 멤버 ‘하루미’의 몸을 더듬은 사건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동노조 집회에 나가지 않게 되어 형식적인 연대마저 좌절된 사실이 밝혀진다. 이렇듯, 지연이 시도하는 리사의 재현은 다시 한 번 실패하고 만다.

지연이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리사와 하루미의 모습은 그가 상상 못했던 복잡성을 띠면서 후속작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와 「하루미, 봄」에서 밝혀진다. 리사와 하루미는 아이돌 그룹에서도 중학교 안에서도 같이 붙어 다니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숨기지 않았던 리사는 연예활동 때문에 급우들에게 “원조교제”[37]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따돌림을 당한다. 그들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38]다는 마음으로 급우 여자 아이들을 따라하고 “세계의 모든 귀여움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말겠다는 듯 앙증맞은”[39] 스티커나 팬시용품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전략은 귀여

37 박민정, 「하루미, 봄」, 『황해문화』 통권 제107호, 2020년 여름, 197쪽.
38 위의 글, 188쪽.
39 위의 글, 188쪽.

움을 추구하는 '여자력'의 획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자력'의 형태는 경제력을 가진 연상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능력이라는, 그동안 박민정 소설에서 그려져 온 '여자력'과는 다른 측면을 지닌다. 리사는 오히려 '아저씨'들과 성적 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여자 아이들 세계에서 그들만의 경쟁력으로 여겨진 '여자력'을 얻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서사는 지은숙이 지적한 것과 같은 '단시(男子)'와 변별되는 '조시(女子)'들만의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여자력'의 포스트페미니즘적 성격을 독자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결국 '여자력'을 지닌 어린 걸그룹 멤버로서 리사를 포함한 '메가미'의 멤버들은 연예계에서 성인에 의해 착취되고 성적으로 대상화된 폭력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돌 그룹 종료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직하고자 한 하루미가 그 과정에서 속아서 AV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앞에서 지연이 리사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동노조원의 편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하루미를 그들이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 편지를 읽은 리사는 "어저씨들과 단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40]라는 희망을 갖게 되지만, 하루미는 과거 동노조 집회에서 자신의 몸을 더듬었던 남자를 떠올린 건지, 결국 그 도움마저도 거절하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한국 여성인 지연의 시점에서는 결코 포착될 수 없으며, 연작을 읽은 소설 독자에게만 노출된다. 이 지점은 일본 여성들의 '여자력'을 단순히 보고자 하는 한국 여성과 복잡하고 단순화 되지 못한 포스트페미니즘적 '여자력'에 익숙해 버린 일본 여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연이 리사를 계속 주목하고 재현하고자 하게 만드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여자력'의 복잡성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사촌 리사」의 마지막에서 지연이 리사를 자신의 소설 속 등장인물로서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대목이다. 리사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리사와 대화를 나눈 뒤 지연은 "리사에게 더이상 어떤 종류의 사실관계든 캐묻고 싶다는 욕망"(133)이 사라지고 "내가 줄곧 원해왔던 것이 주인공을 '대상화'하지 않는 정

40 박민정,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 『현대문학』 통권 제773호, 2019년 5월, 218쪽.

직한 서사였던가”(133)라고 스스로 묻게 된다. 리사와 헤어지자 지연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동노조 조합원의 편지 내용을 상상하며, 새로운 리사의 재현을 시도하고자 한다.[41] 지연에게 리사는 사촌이지만,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상처를 받은 ‘타자’이며, “리얼한 완결된 이야기”[42]로는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은 “풀리지 않는”(123) 리사의 이야기를 “핍진하게”(134) 소설에 담고자 애쓴다. 이와 같은 재현이 다시 실패하거나 새로운 마찰을 낳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 상상하고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지연의 모습은 ‘대화’를 원하고 앎의 가능성을 보여준 「세실, 주희」의 세실을 떠올리게 한다. 신자유주의적 사회[43]에서 무의식적으로 포스트페미니즘적 의식을 내면화하며 사는 박민정 소설 속 한일 여성들은 서로 오해하거나 상처 주

41 이 장면에서 지연이 상상하는 편지의 내용은 리사가 지연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편지의 발신인은 “동노조 조합원인데, 언제나 많이 외로우셔”(133)라고 설명한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연은 여전히 리사를 응원하는 팬의 모습을 상상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에서는 결국 지연의 그러한 상상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소설에서 리사는 “그 아이[지연]는 자기가 발견한 편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내용일랑 짐작할 수 없겠지. 지연은 마치 그 편지가 팬레터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것 같았어. 어쩌면 아저씨들 중에 심각한 오타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박민정,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 앞의 글, 217쪽.) 라고 지연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이렇듯, 지연의 상상은 또 다시 실패하고 만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나의 사촌 리사」의 마지막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서 지연이 동노조 조합원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리사의 말에 “조금도 비하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지 않았”(133)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으며, ‘실패자’로서의 리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재현을 시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저씨’를 비하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공감하는 듯한 리사를 지연은 받아들이고 그를 다르게 상상하려는 모색을 시작하는 것이다.

42 오카 마리는 타자가 경험한 사건을 “리얼한 완결된 이야기”로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의 욕망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결국 이러한 욕망은 타자가 입은 폭력을 부인하고 망각하는 욕망과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재현 불가능한 타자의 존재를 부인해버린다.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69-170쪽.

43 「나의 사촌 리사」의 지연 또한 신자유주의적 소비사회의 논리에 익숙한 인물임이 시사된다. 주지하다시피 지연은 경쟁적인 연예계에서 결국 탈락한 셈인 리사를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리사가 “지연은 왜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거야?”라고 묻자 지연의 시선이 “글이 안 써진다는 핑계로”(120) 자신이 충동 구매했던 텀블러와 찻잔을 향하는 장면은 지연 스스로도 소비사회에 길들여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면서도 그 관심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5 나가며 —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속 한일 여성이 가진 희미한 가능성

박민정 소설에 나타난 한일 여성 서사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를 사는 한국 여성의 시선을 통해 전개된다.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백래시를 거친 일본 여성들은 박민정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 여성의 눈에는 여성의 억압과 차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여자력'이 높은 여성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들은 이러한 일본 여성들을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은 주목하게 되는 존재이며, 그들에 대한 인식은 교류할 때마다 수시로 바뀐다. 이러한 시점은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현재 한일 여성의 미묘한 마찰을 예리하게 짚고 있다.

많은 논자들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박민정 소설은 여성들의 동질감보다도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44] 그의 소설에서 그려지는 한일 여성들 역시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 현위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연대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소설 속의 일본 여성들이 지니는 '여자력' 역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차이의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자력'의 뒷면에는 페미니즘의 이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그늘이 있다. 무한경쟁을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여성성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자기계발의 대상으로 보는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적 '여자력'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문제시하면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신자유주의 영향 아래서 스스로의 자본주의적 경쟁력을 꾸준히 증명해야 할 한국 여성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포스트페미니즘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44 예컨대 인아영은 "박민정의 서사 전략은 여러 여성 인물들을 젠더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대신 국가, 세대, 계급이라는 다층적인 조건들의 차이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여성의 대상화 혹은 피해자화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소설을 지탱한다"고 지적하며, 박민정 소설의 핵심이 여성 인물들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한다.(인아영, 앞의 글.)

서로를 완전하게 타자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민정 소설에 나타난 '여자력'을 둘러싼 사건은 한일 여성 사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역할로 기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실이나 지연이 보여주는 서로에 대한 관심은 한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와 마찰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여정의 첫 걸음으로 읽을 수 있다.[45] 박민정 소설을 일본에 대한 "혐오의 기록"[46]을 넘어, 포스트페미니즘과 직면한 한일 여성의 분투의 서사로 읽었을 때, 소설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진정한 '친구'로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상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일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민정, 「A코에게 보낸 유서」, 『아내들의 학교』, 문학동네, 2017, 47-120쪽.

_____, 「나의 사촌 리사」, 『창작과비평』 통권 제183호, 2018년 겨울, 118-134쪽.

_____, 「나는 지금 빛나고 있어요」, 『현대문학』 통권 제107호, 2019년 5월, 205-221쪽.

_____, 「하루미, 봄」, 『황해문화』 통권 제107호, 2020년 여름, 181-200쪽.

45 인아영은 "박민정의 소설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별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국가적, 계급적, 세대적 차이를 못 본 체하고 넘어가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하면서, 여성들의 연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박민정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연대의 실패라기보다는 더욱 단단한 연결을 위한 밑바탕"이라고 역설한다.(위의 글.)

46 최정호, 「혐오의 기록—박민정론 「세실, 주희」, 「나의 사촌 리사」, 「하루미, 봄」을 중심으로」, 『세계일보』, 2021.1.1.

_____, 「세실, 주희」, 『바비의 분위기』, 문학과지성사, 2020, 41-73쪽.

단행본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나무연필, 2017.

_____, 「할머니들」, 『페미니스트 모먼트』, 그린비출판사, 2017, 47-50쪽.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62-170쪽.

Shelly Budgeon, "The Contradiction of Successful Femininity", eds., Rosalind Gill and Christina Sharff, *New Femininities—Postfeminism, Neoliberalism and Subjectiv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pp.279-292.

菊地夏野, 『日本のポストフェミニズム—「女子力」とネオリベラリズム』, 大月書店, 2019, 69-128쪽.

米澤泉, 『「女子」の誕生』, 勁草書房, 2014, 191쪽.

논문 및 평론

김건형, 「소설의 젠더와 그 비평 도구들이 지금」, 『문학과사회(하이픈)』 통권 제127호, 2019년 가을, 25-47쪽.

오은교, 「'혐한'과 '노재팬' 운동 속 일본 여성을 읽는 일」, 『크릿터』 통권 제2호, 민음사, 2020, 8-17쪽.

오혜진, 「허윤, 오혜진의 백일몽 4. '멍청한 여자'」, 『핀치』, 2019. https://thepin.ch/think/p9oGw/daydream-4 (최종 접속일: 2025.3.15.)

_____,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한국 여성문학·퀴어문학 연구—2010년대 이후 시민권 담론과 소수자정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이채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역학관계—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구축과 한일 여성연대 가능성」, 『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1호,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125-165쪽.

인아영, 「유토피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박민정론)」, 『경향신문』, 2018.1.1.

지은숙,「능력주의는 여성을 임파워링하는가—일본의 여자력(女子力) 담론을 통해 본 능력주의와 페미니즘의 역동」,『페미니즘연구』제22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22, 35-71쪽.
최정호,「혐오의 기록—박민정론「세실, 주희」,「나의 사촌 리사」,「하루미, 봄」을 중심으로」,『세계일보』, 2021.1.1.
황호덕,「큰 일본, 그런 일본, 어떤 일본—'일본'이라는 일상 개념, 한국 소설과 일본(인), 대타자에서 교차성까지—」,『개념과 소통』제30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2, 95-136쪽.
Rosalind Gill, "Postfeminist media culture": Elements of a sensibility, *European Journal of Cultual Studies Vol. 10, No. 2*, 2007, pp.147-166.
髙良沙哉,「沖縄靖国神社合祀取消訴訟」,『沖縄大学人文学部紀要』, 沖縄大学, 2012, 63-71쪽.

기타자료

배삼식, 박민정, 허윤,「두 여자의 이야기 -역사와 민족의 경계를 질문한다」,『문학동네』2019년 겨울호, 68-83쪽.
「작년 한일 관광객 상호 1위…일본 방문 한국인이 세 배」,『연합뉴스』, 2024.1.31.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154200030 (최종 접속일 2025.3.15.)
「1~5월 日관광객 66만명 한국 찾아…외국인 관광객중 '최다'」,『매일경제』, 2024.7.9. https://stock.mk.co.kr/news/view/169956 (최종 접속일 2025.3.15.)
「消費者標本調査結果 2014年度」, 吉田秀雄記念事業財団, 2014, https://www.yhmf.jp/aid/data/omnibus_2014.html (최종 접속일 2025.3.15.)

Abstract

Possibilities of Dialogue and Imagin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the Postfeminism Era

–Focusing on the Joshiryoku in Park Min-jung's novels

Mizuguchi Natsum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narratives of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Park Min-jung's novels,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for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that emerge. Japanese women in Park Min-jung's novels are characters with Joshiryoku(girl power). The discourse of Joshiryoku in Japan is often explained by relating it to passive femininity. However it can be understood as a postfeminism phenomenon that asserts female subjectivity combined with neoliberal meritocracy based on endless competition and self-improvement, considering conventional feminism as an expired concept. On the other hand, in Park's novel, the Korean women who observe Japanese women's femininity are those who have experienced a Feminism Reboot, which also occurred within the field of postfeminism. The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the novel share the same sensibility of postfeminism, although they are represented differently.

However, due to their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Park's novel seem to be far apart, and their solidarity is not easily achieved. Nevertheless, they are similar in that they live in a neoliberal society and have internalized postfeminist attitudes, so they are unable to completely otherize each oth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nterest in each other shown by Cecil in *Cecil, Ju-hee* or Jiyeon in *Lisa* series can be read as a first step towards a new dialogue and imagination. When Park's novel is read as a narrative of the struggle of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the face of postfeminism, it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thei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has not yet been closed.

Key words: Postfeminism, Feminism Reboot, Joshiryoku, Neoliberalism, Korean and Japanese Women, Park Min-jung

논문제출 / 2025.03.15.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